



“무전기능 갖춘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세계 공략”

2007년은 블루투스 헤드셋(이어폰)이 난립하던 시기였다. 김수호 시코드 사장(57)은 어떻게 하면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을지 고민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무전기능 핸즈프리로 사용할 수 있게 해보자”는 것이었다. 무전기 블루투스 핸즈프리 제품을 개발한 배경이다. 이후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앱(응용프로그램)과 연동해 무전기와 이어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 ‘위드유’까지 개발하게 됐다. 김 사장은 “기존 무전기는 유선 이어폰으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해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가 재난망 등 기간망은 물론 보안업체나 민간 기업 중심으로 보안과 통신용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블루투스 무전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호 시코드 사장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과 주먹마이크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시코드 개요	
설립	2007년 3월
위치	경기 광명시 하안로
제품	스마트 블루투스 헤드셋 위드유
특징	앱과 연동하는 이어폰 겸용 무전기

스마트폰서 작동하는 제품 개발 “軍·경찰·호텔 등 판매 나설 것”

헤드셋 등 맞춤형 제품 생산 日 신칸센 등 해외 수출 확대

할 수 있는 제품도 내놔. 개발 과정에서 ‘PTT’ 통신용 핸즈프리, 이를 이용한 PTT 통신시스템 및 방법과 ‘다채널 원격 PTT 통신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다채널 원격 PTT 통신방법’ 등에 대한 특허도 받았다. 김 사장은 무전기의 장점 대해

“한 명이 말하면 여러 명이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누르자마자 바로 소통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전화기는 신호가 가고 상대방이 받는 데 최소 6초가 걸린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무전기에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2014년 말 미국 무전 앱(Zello) 개발업체로부터 협업하는 제안이 왔다. 그 결과 2015년 상반기 스마트폰 앱에서 작동 가능한 블루투스 이어폰 겸용 무전 단말기를 개발했다. 안드로이드와 iOS기기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 소음 차단 기능을 갖춰 시끄러운 외부에서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제품이다. 대용량 배터리를 내장해 산업 현장에서 8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국가 무전기간담 등 수요처 다양 김 사장은 앞으로 모든 무전기 시장이 4G(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LTE망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블루투스 이어폰 겸용 무전기로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ij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0~11월 으뜸중기 제품 △시코드-스마트 블루투스 헤드셋 위드유 △코아-스피드도어 △성원제이에스-철재선반 원더랙플러스 △핏핏-핏핏 어헤드 반라 동물 소변검사키트 △바이오셀드-3D포밍 풀커버 플렉스글라스 △아기연구소-이드베베 일회용 침방이 원데이비스 △다인스-발 각질제거기 트리케어 △아베코-켓 헬스케어 아베코

다. 국가 재난망 철도망 해양망 등 기간망과 군 경찰 소방서 보안업체 호텔 식당 골프장 등에서도 블루투스 이어폰 겸용 무전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 얘기다.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LET 무전기 시장에 뛰어들고 이를 이용하는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다.

김 사장은 채널 변경이 가능한 주먹마이크 헤드셋 등 고객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NEC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신칸센 등에 공급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6년 13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2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외형도 커지고 있다. 김 사장은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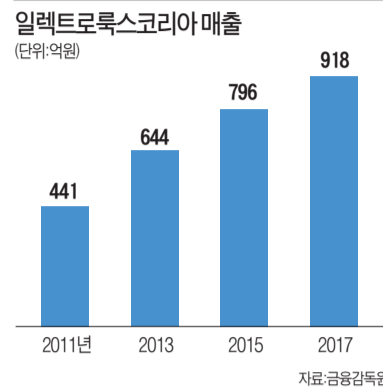
중견 전자업체 사장이 유럽 브랜드를 찾아 헤맨 이유

뉴스카페

국내 한 중견 가전업체 A대표는 지난 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8에 갔다. 해외 가전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국내에 들어올 유럽 가전 브랜드를 찾는 것이었다. 그가 돌아본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유럽에서 꽤 역사가 있는 공방 브랜드였다. 매출은 100억 원대였다. 미팅 도중 유럽 가전 브랜드 담당자가 A대표에게 물었다.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A사의 매출은 1000억~2000억 원대였다. 담당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매출 규모가 10배 이상인 경쟁력 있는 업체가 뭐가 아쉬워서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는 의미였다.

A대표가 유럽 브랜드 도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 몇 년간 국내 가전 시장에서 유럽 가전 브랜드 인기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비슷한 품질 제품에도 유럽 브랜드가 붙으면 가격이 크게 뚝뚝”은 게 그의 말이다. 예컨대 비슷한 품질의 소형 주방가전에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금액은 국내 브랜드 제품이 3만~5만원, 태팔 필립스 등 유럽 브랜드 제품은 10만~15만원 정도다. 사장이 이렇다 보니 A사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중견 가전업체들이 유럽 브랜드를 찾아다니고 있다.

가격 차이만큼 품질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A대표는 스웨덴 가전 브랜드 일렉트로룩스를 예로 들었다. 일렉트로룩스는 국내 진출 초기 청소기 브랜드로 알려졌다. 지금은 전기주전자부터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지도가 높아져서 품목을 다양화했다. 일



렉트로룩스는 대우전자로부터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으로 공급받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다. 일렉트로룩스 냉장고의 실제 제조업체는 대우전자란 얘기다. “똑같은 대우전자 냉장고도 일렉트로룩스 브랜드가 붙으면 가격이 두 배 된다”고 A대표는 말했다.

가전뿐만이 아니다. 아동복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타티네 쇼콜라, 압소바 등 아동복은 프랑스 라이선싱 브랜드다. 실제 의류 디자인과 제조는 국내 업체가 한다. 하지만 프랑스 브랜드를 붙여야 잘 팔리기 때문에 로열티를 낸다.

전문가들은 동조심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광복 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품질이 약한이라도 좋으면 무리해서라도 특정 브랜드를 사려고 하는 현상이 행태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는 집단동조 심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물에서 ‘남이 많이 본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것, 인구의 20%인 1000만 명이 보는 영화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등도 집단동조 심리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광 교수는 “무조건 값비싼 제품을 사기보다 품질 등을 따져봐야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LG하우시스 ‘이음선 없앤’ 창호 출시

접합·절단기술로 두께 대폭 줄여

LG하우시스가 국내 처음으로 창 프레임 모서리 부분의 하얀색 이음선을 안 보이게 처리한 PVC(폴리염화비닐)창호를 선보였다.



LG하우시스는 기존 PVC창호 디자인의 최대 단점이었던 창 프레임 모서리 부분의 하얀색 이음선 두께를 육안으로 거의 안 보이는 수준(0.15mm)까지 줄인 PVC창호 신제품 ‘자인(Z:IN)창호 화이트라인’ 제품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PVC창호는 모서리가 45도로 절단된 프레임을 가열하고 접합해 하나의 프레임이 된다. 접합 이후 돌출부 제거 과정에서 프레임의 하얀색 이음선 부

분이 어쩔 수 없이 노출된다. 창호업계에서는 그동안 0.5mm 정도였던 이 하얀색 이음선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LG하우시스는 기존에는 창호 프레임 용접 후 돌출부 절단까지 두 번으로 나눠서 하던 공정을 PVC 프레임 접합·절단 기술을 활용해 동시에 진행해 이음선 두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 신입 직원 모집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입 직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사무직 및 전산직 부문이다.

사무직은 연령, 학력,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전산직은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다. 채용방식은 ‘정규직 연계형 인턴’으로 2개월의 인턴십을 거쳐 인턴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다.

서류 접수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기중앙회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이 이어지고 인턴십 과정을 통해 2개월의 현업부서 근무를 한 후 최종평가를 통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코웨이, 하반기 인턴사원 모집

코웨이가 하반기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국내외 학사 학위 이상 졸업자 및 내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영지원 △전략기획 △국내 및 해외 영업·마케팅 △연구·생산·품질 등 17개 분야 사원을 뽑는다.

접수는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4시까지 코웨이 홈페이지(www.coway.co.kr)를 통해 이뤄진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달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직무적합도 검사, 면접(1차·2차) 순이다.

합격자는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인턴 과정을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한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모십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세미나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엮는다. 최영훈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및 제도’를,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기술신약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사업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기보역

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11월2일(금) 오후 2-4시 ●장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참가 대상: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에 관심 있는 기업, 공공기관 관계자 등 ●접수: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선착순 250명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51)606-7636

주최: 기술보증기금·한국경제신문 후원: 중소벤처기업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왕좌의 게임〉〈번뇌〉 제임스 포크너
〈매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임스 카비젤

PG-13

단체관람 문의 | CBS시네마국 02.2650.7942 (친구사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다!

전미 박스오피스 8위! 기독교 흥행 대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PAUL: APOSTLE OF CHRIST

10월 31일, 전국 극장 대개봉

[EVENT]

e-Book [생각하는 한 세기사 컬렉션 11-바울: 크리스티교를 세계화하다] 역사적 관점에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추적한다! 영화 <바울> 관람 시, <바울: 크리스티교를 세계화하다> e-Book 00일간 무료대여 * 자세한 사항은 CBS시네마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세요.